



예거 르쿨트르, '디 아워 비포(The Hour Before)'를 통한

새로운 프렌드 오브 하우스 발표

주요 정보:

- 탁월함을 완성하는 보이지 않는 순간들의 기록
- '디 아워 비포' 시리즈를 통해 공개된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프렌드 오브 하우스, 오마르 시(Omar Sy)
- 장인 정신, 탁월함, 그리고 세련미를 향한 여정

예거 르쿨트르가 배우 오마르 시(Omar Sy)를 새로운 프렌드 오브 하우스로 맞이합니다. 스크린을 압도하는 존재감과 독보적인 스타일, 그리고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 영화계에서 인정받아 온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오마르 시는 동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인함과 섬세함, 유머와 깊이를 겸비한 그의 연기는 꾸준한 찬사를 받고 있으며,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시간을 통해 완성되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철학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파인 워치메이킹에 깊은 애정을 지녔던 오마르 시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게 시계는 단순한 액세서리 그 이상입니다. 시간에 대한 태도와 절제심, 그리고 나만의 개성을 담아내는 표현 방식이죠. 저는 디자인과 장인 정신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작품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에는 과하지 않아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절제된 탁월함과 세심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이룬 절묘한 균형은 저라는 사람과 제가 작업에 임하는 방식과도 닮았습니다."

탁월한 장인 정신으로 이어 온 여정

오마르 시는 지난 30 여 년 동안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라디오와 TV 코미디를 통해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오늘날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배우가 되기까지 매번 기대를 뛰어넘으면서도 자신만의



진정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코미디는 그의 출발점이었지만 가능성의 한계를 규정짓지는 않았습니다. 특정 장르에 안주하지 않은 그는 다양한 캐릭터와 서사를 탐구하며 창작의 지평을 꾸준히 넓혀 왔습니다. 각각의 배역에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그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와 마찬가지로, 오마르 시 역시 진정한 탁월함은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연기 뒤에는 늘 준비와 훈련, 그리고 연마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는 취약함과 강인함, 따뜻함과 무게감, 자신감과 겸손함 사이의 균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인물에 인간미를 불어넣습니다.

자신감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독보적인 존재감

오마르 시의 존재감은 강인함과 따뜻함이 조화를 이룹니다. 스크린에서든, 무대 위에서든, 혹은 조명이 꺼진 뒤의 일상에서든, 그는 꾸며내지 않은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의 스타일은 과시적이지 않으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편안함으로 완성됩니다.

그는 커리어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정체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자연스레 뿜어져 나오는 그의 카리스마는 과시가 아닌, 진정성과 자기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우아한 품격입니다.

이러한 감각은 예거 르쿨트르의 철학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가 추구하는 세련미는 균형과 정밀함, 그리고 절제 속에 존재합니다. 순수한 디자인에서 비롯된 변함없는 매력으로 사랑받는 리베르소처럼, 오마르 시의 스타일은 실용적이면서 차별하고 섬세한 감각이 돋보입니다.

디 아워 비포: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순간들

예거 르쿨트르는 결정적인 성취에 앞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조명하는 *디 아워 비포* 시리즈를 통해 오마르 시와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디 아워 비포*는 단순한 다큐멘터리 형식을 넘어, 성공의



결실이 눈앞에 나타나기 전의 시간을 들여다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맡기 전, 기립박수가 터져 나오기 전,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기 전. 그 이면에는 불확실성과 준비, 그리고 인내의 순간으로 채워진 숨겨진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 시리즈는 선택의 기로, 흔들리는 믿음, 그리고 야심 찬 포부가 마침내 구체화돼가는 그 찰나의 순간들을 탐구합니다. 진솔하고 사적인 인터뷰를 통해, 시리즈의 주인공들은 세상이 자신을 주목하기 훨씬 이전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경험들을 공유합니다.

오마르 시는 관습에 도전하는 과감한 선택,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순간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한 확고한 결단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시간과 헌신이 쌓여 비로소 탁월함으로 이어진다는 *디 아워 비포*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CEO 제롬 랑베르(Jérôme Lambert)는 “예술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와 절제된 자신감, 그리고 독창적이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스타일을 겸비한 오마르 시는 우리 메종의 가치와 미학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인물입니다. *디 아워 비포*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그가 예거 르쿨트르를 대표하는 얼굴로 함께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마르 시 소개

오마르 시는 프랑스어권과 영어권을 넘나들며 40 편 이상의 영화와 TV 시리즈에 출연해온 프랑스 영화 배우이자 프로듀서로, 유럽과 미국을 아우르며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1978 년, 파리 외곽 트라프(Trappes)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30 년 전 라디오 코미디로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이후 프레드 테스트(Fred Testot)와 함께 프랑스 국영 방송에서 활동했습니다. 에릭 톨레다노(Éric Toledano)와 올리비에 나카슈(Olivier Nakache) 감독과 함께한 첫 번째 영화 <텔lement 프로슈(Tellement Proche, 2009 년)>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연기를 바탕으로, 2 년 뒤 <언터처블: 1%의 우정(Les Intouchables)>의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영화 역사상 가장 흥행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이 작품으로 오마르 시는 세자르상(César award)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 두 감독과 협업을 이어온 그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X-Men: Days of Future



Past, 2014 년)>와 <쥬라기 월드(Jurassic World, 2015 년)> 등 할리우드 작품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2021 년부터는 넷플릭스 시리즈 <뤼팽(Lupin)>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한층 더 드높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가상의 괴도 아르센 뤼팽(Arsène Lupin)에서 영감을 받은 주인공 아산 디오프(Assane Diop) 역을 연기하는 동시에, 아티스틱 프로듀서로서 제작에 참여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로맨틱 코미디 <프렌치 러버(French Lover, 2025 년)>에 출연했으며, 2026 년 가을에 공개될 <뤼팽> 시즌 4 와 2027 년에 개봉하는 프랑스 최초의 흑인 장군을 다룬 전기 영화 <뒤마: 블랙 데빌(Dumas: Black Devil)>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 해에 루소 형제(Russo Brothers)가 설립한 AGBO 스튜디오가 제작하여 글로벌 대표작으로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 넷플릭스 액션 스파이 시리즈, <머서너리(Mercenary)>의 주연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오마르 시는 연기와 프로듀싱뿐 아니라 특히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과 투자 활동에도 점차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2025 년부터 그는 프랑스 주요 프로 농구 클럽 중 하나인 파리 바스켓볼(Paris Basketball)의 공동 구단주 겸 주주로 활동하며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프랑스 및 전 세계에서 스포츠 발전을 지원하려는 오랜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 아틀리에에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82 곳의 아틀리에, 108 가지의 공예, 그리고 69 가지 시그니처 기법을 포함한 총 235 가지의 노하우가 한데 모인 매뉴팩처 아틀리에에서는 독창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미학, 그리고 절제된 세련미가 한데 어우러진 탁월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이 탄생합니다.